

“韓 거부권, 윤석열식 자멸의 길”

〈한덕수 권한대행〉

민주 전북도당, 농업4법 등 개혁법안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4법 등 개혁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책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는 윤석열식 자멸의 길”이라는 주장을 했다.

김슬지 수석 대변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을 포함한 민생 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이 초래한 극심한 혼란과 국정 공백을 수습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윤석열이 남발한 거부권 정치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농업 4법’은 농생명 수도를

천명한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졌으며,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이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도탄에 빠진 농민과 식량 안보의 핵심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 관련 개혁법안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농업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농업을 살리는 이 법안들을 거부해 농업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윤석열의 내란 계엄은 12월 3일 갑자기 기획돼 결정된 게 아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대변하는 국회에 대한 부정과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이뤄지는 정치에 대한 혐오가 바탕이 되어 끝내 망국적 내란 행위로

폭주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자신이 선택한 거부권이 결국, 의회를 부정하고 정치를 혐오했던 ‘윤석열의 길’을 따르겠다는 선포란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이유로 들었지만,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을 심의한 국무총리로 계엄을 막지 못한 핵심 책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은 윤석열의 자멸적 유산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이 초래한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의 최선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민의를 경청하고 국회와 협력해 정국을 안정시키

고 국력과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를 거부한 윤석열식 ‘통치’가 과국을 맞은 탄핵 정국의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심의 의결했다.

한 대행은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머리말에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이만호 기자

전북 국회의원들, 민주당 ‘2024 국감 우수’ 선정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 병)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방통위 2인 구조를 통한 방송장악 국면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복귀 권고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또 다가오는 AI시대에 걸맞도록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 폐지 문제를 지적하고 과학기술강국을 위한 발전과 투자를 촉구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언



론장악 기도의 위험성과 대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한 국정감사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을 차분히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특수법”의 해악성을 국민께 알렸다”며 “민생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고 농어촌 시군민에 대한 저리대출 문제 등 가장 국민과 밀접한 일상에서부터 접근하도록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춘석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북 소외’를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이춘석 의원이 당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와 교통 분야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시대에 역행



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밀뽀인 균형발전’ 정책을 질타하고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진정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어업 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 회복·개혁 완성·미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국회의원을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평가·선정했다.



우수의원으로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의 농어업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 점검, △쌀값 안정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합의 문제점 등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희승 의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전복지위)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확으로 포장된 맹신’이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를 ‘공공, 필수, 지역의료’ 측면에서 집중 조명하고, △삼병수당,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공약 불이행을 점검했으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투기적 사모펀드인 MBK의 기간산업 기업 인수 문제점 등을 두루 제기했다.

또 △국가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적 역할 방기를 지적하고, △건강



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

한 사회적 울타리를 보다 촘촘히 하고,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화두로 제시했다.

한편 앞서 박희승 의원은 푸드투데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선정 ‘한국경제문화대상’ 정치 부문에 선정됐다. /이만호 기자

“농업민생 4법 공개 TV토론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법안에 대한 공개 TV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이행하지 못한 농정의 무능에 대해 일말의 회책이나 사과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시한 반대이유는 그동안 레코드를 넘어왔던 윤석열 정권만의 농정관(도그마)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민주 윤준병 의원,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규탄”

이후 윤 의원은 ‘농업민생 4법’ 각각의 쟁점과 당위성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되, 정부의 무능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해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부 무능에 대한 보완장치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 매입 및 가격 안정 조치를 도입한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예 기준 및 의무매입에 대해서는 그 심의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호도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식량안보에 필수 양곡인 전락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의 집중’으로 폄하했다”며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수입안정보험은 2027년에도 수확량 검증체계 구축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급조된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기본원칙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를 구체화한 내용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기본법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농어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 할증이 없다’는 보험책임의 기본원칙을 반영했다며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할증 적용을 배제해 정책보험이라는 미명 하에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보험의 기본원칙·형평성 등을 운운하며 전하 다른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거부권 행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일정 마무리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이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 한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총 35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17건을 포함해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익산시 본예산을 △일반회계 136,533억2,800만원, △기타특별회계 165억7,500만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409억3,400만원, 총 138,108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김경진 의장은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과 자치준비와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정현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다가오는 2025년 푸른 뱀의 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5분 발언에서 한동원 의원은 신장증층에 대한 기초 변화와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송영자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경로당 급식 지원범위 확대를 촉구했으며, 이종현 의원은 스마트팜 도입 종합계획 수립 및 농업재해 복구 시가지대 해소방안을 강구했다. 장경호 의원은 평화동 중계펌프장 악취 피해로 인한 주민 건강상해 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관해 발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된 3개 부서(체육진흥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상수도과)에 표창을 수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의(의장 김영태)는 19일 제269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3건을 의결하였으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약 170억원을 삭감한 9,967억원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날 정례회에서는 이숙자 의원(시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서서, 지난 2022년부터 운봉읍의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의 불법 위반과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 관리·운영 실패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농어업경영체법,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 보조금



법 등의 법령위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 회계 공개에 관하여 투명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태 의장은 폐회사에서 “얼어붙은 남원시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며,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전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추경을 열 준비가 되어있으니 시민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주 기자



도의회, 올 하반기 이·퇴임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이·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퇴임하는 김영원 사무처장과 문은철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안숙영 입법정책 주무관 등 4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 여성사 연구 방향성 마련

도의회 지역 여성사 재조명연구회, 기초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전북자치도의회 지역 여성사 발굴 및 재조명 연구회(이하 여성사 연구회)는 19일 전북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자치도 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성사 연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 못지않은 흔적을 남긴 여성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박용근 의원이 대표위원, 임종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여성사 연구의 토양이 척박한 환경에서 지역 여성사 연구의 체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여성사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책임연구원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전북



여성사의 개념을 “전북에서 출생, 성장, 활동, 사망 등의 생애를 보낸 여성의 삶 또는 전복사회의 성별 규범과 관련된 유의미한 사건, 인물, 문화 등에 대한 지역 역사”로 정립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139개의 연구 주제와 57명의 인물, 12개 시군 관련 자료 등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적극적인 구술생애사 작업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학술포럼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기념관 설립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22일 ‘국민과 함께 승리한尹 탄핵 보고대회’

민주 전주 갑·을·병 지역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온누리홀에서 ‘국민과 함께 승리한 윤석열 탄핵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최정열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 5)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탄핵보고대회는 12·3 윤석열 내란사건’의 단초가 된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파장을 복기하고, 시민 주도의 비상계엄 저지와 14일 탄핵소추안 통과까지 긴박했던 순간들을 조명한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앞장서 견제했던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을)이 국회 탄핵소추위원

으로서 이번 윤석열 탄핵의 의의를 보고하고, 전주시민과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 민주주의 승리를 자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탄핵 응원발과 촛불을 들고 삼삼오오 객사로 나선 시민,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주먹밥을 나눠 시민 자원봉사자, 기업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여의도로 향한 시민 등 불법 계엄을 막아낸 전주시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탄핵보고대회에는 김운덕(전주갑)·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방응송 혁신회의 전북공동대표와 각계의 인사들도 함께 참여해 대화를 한층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